

커버스토리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2023 언론인 조사>로 보는 한국 언론인의 안부

무력감, 자기 검열, 현실 안주 두드러져 특히 '허리 역할' 기자 위한 지원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11월 <2023 한국의 언론인: 제16회 언론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기자직 종사자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현시대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고민하는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언론에 대한 이유 있는 또는 이유 없는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많은 언론인들은 양질의 저널리즘 수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인들의 생각을 살펴야 어떤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좋은 저널리즘의 징이 잘려 나가지 않게 할지 고민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의 기자직 종사자 2,011명을 설문조사하고 응답자 중 18명을 심층 인터뷰해 발간한 <2023 한국의 언론인: 제16회 언론인조사> 보고서에는 결코 가벼이 지나치지 말아야 할 언론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자세한 조사 개요는 [표] 참조). 무력감, 자기 검열, 현실 안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지금 상당수의 한국 언론인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기자

대상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논쟁의 소지 없는 안전한 기사를 쓰는 방향으로 자기 검열하고 있으며, 직업 만족도와 사기 하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업계를 떠나려 하는 동시에 일부는 현실 안주를 택하고 있다.

● 혁신, 또 혁신… 실패에 지친 기자들

디지털 혁신은 지난 십여 년간 저널리즘 업계의 화두였다. 혁신을 통해 좋은 저널리즘 생산물로 뉴스 이용자를 모아 수익을 냈으므로써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언론계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언론인 조사 결과는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부재하는 데 따른 무

[표] <제16회 언론인 조사> 개요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설문조사	조사 대상	언론 산업 종사자 중 기자직 종사자 2,011명
	조사 방법	대면 면접조사, 언론사별 온라인/모바일 조사 병행
	조사 기간	2023년 7월 5일~10월 6일
	조사 기관	(주)메가리서치
심층 인터뷰	조사 대상	연차별 3그룹 총 18명 참여
	조사 방법	심층 면접(FGI) 실시
	조사 기간	2023년 9월 23일~10월 5일
	조사 기관	(주)메가리서치

[그림 1] 디지털 대응 및 혁신에 대한 피로감 정도



<출처 - 2023 한국의 언론인 보고서>

력감이 기자들 사이에서 팽배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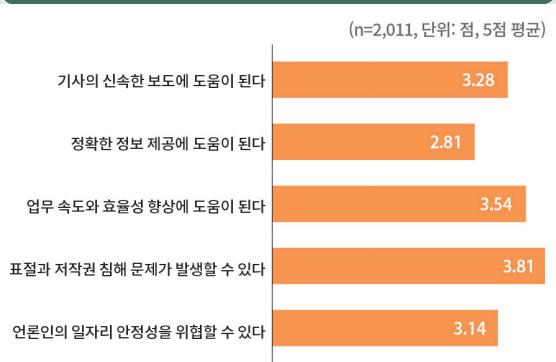
특히 혁신에 대한 피로는 더 악화하지 않지만 나아지지도 않은 채 고질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38.3%가 디지털 대응 및 혁신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 언론인 조사 당시의 38.2%와 비슷한 수치다. 5점 척도로 봤을 때 2023년의 평균은 3.15점으로 2021년 조사 당시의 3.14점과 거의 비슷하다. [그림 1]

흥미로운 부분은 포털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이다. 언론사 홈페이지, 앱과 같은 독자적 플랫폼을 활성화해 충성 이용자를 모아 생존해야 한다는 ‘탈포털’이 최근 몇 년간 언론사 디지털 혁신에 있어 중요한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뉴스 유통 채널로서 포털의 중요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디지털 뉴스를 유통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무려 76.6%의 응답자가 포털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모순을 설명해 줄 실마리는 심층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 없이 실패를 거듭 했고, 그 결과 포털 위주의 현 뉴스 생태계에 안주할 마음을 먹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언론사의 디지털 혁신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생성형 AI 도구가 언론사에 미

[그림 2] 생성 AI 도구 활용이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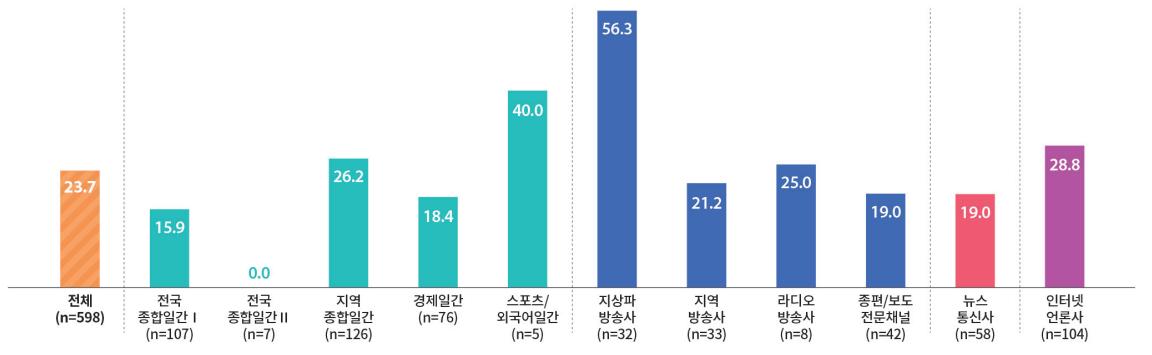
<출처 - 2023 한국의 언론인 보고서>

칠 영향에 대한 기자들의 생각은 복잡했다.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표절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81점)는 점과 함께 ‘언론인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3.14점)는 측면에 대해 기자들은 꽤 우려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 속도와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3.54점)는 점, ‘기사의 신속한 보도에 도움이 된다’(3.28점)는 점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 존재했다. [그림 2]

생성형 AI가 언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직무 수행 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이가 54.3%,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45.7%로 활용하고 있는 기자들이 조금 더 많았다. 향후 언론사에 생성형

[그림 3] 소속 매체별 악의적인 고소, 고발 괴롭힘 경험

(Base: 지난 1년간 취재보도로 인한 괴롭힘 경험자, 단위: %)



<출처 - 2023 한국의 언론인 보고서>

AI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60.4%로 많았고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9.2%에 불과했다.

● 악의적 고소, 고발의 증가와 자기 검열

언론인에 대한 일상적인 괴롭힘 역시 나아지지도 악화하지도 않은 채 고질화하는 모양새다. 응답자의 29.7%가 지난 1년 동안 취재·보도로 인해 취재원, 취재 대상 또는 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비율은 남성(28.3%)보다 여성(32.8%) 기자 사이에서 높았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발생하는 괴롭힘의 유형도 2021년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간 기자 대상 괴롭힘에 대한 현황 조사나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세부적인 괴롭힘 유형을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괴롭힘’(79.1%), ‘웹사이트 악성 댓글’(51.2%), ‘악의적인 고소·고발’(23.7%), ‘SNS에서의 집단적 괴롭힘’(17.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 관련 응답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악의적인 고소·고발이다. 이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한 괴롭힘보다는 빈도가 낮다 해도 악의적인 고소·고발 경험은 기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이들은 지상파방송사(56.3%) 소속 기자였다.^[그림 3] 언론인 대상 괴롭힘이 특히 영향력이 큰 주류언론 소속 기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알려진 바다.

악의적 고소·고발의 증가는 기자들의 저널리즘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층 인터뷰에 참가한 기자들은 이 같은 종류의 괴롭힘이 가져오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가 자기 검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취재원으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경험했던 한 기자(전국종합일간, 10~15년 차)는 “소송이 한 번 제기가 되니까 굉장히 귀찮아졌다. 의견서도 써야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 이후로는 (소송당한 것과 같은 주제에 대해) 기사를 쓰면 또 피곤해지겠구나 하는 생각 해 미리 ‘تون다운’을 시킨다”고 말했다.

자기 검열 강화는 자연스레 언론의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감시 기능은 기자들이 그 중요도에 비해 실행 정도가 특히 낮다고 여기는 항목

이다.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 및 감시’에 대한 중요도(4.33점)와 실행도(3.17점)간 차이(1.16점)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정부공인에 대한 비판 및 감시’에 대한 중요도(4.46점)와 실행도(3.40점) 차이(1.06점)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자기검열의 증가는 그 간극을 더 넓힐 수 있다.

악의적 고소·고발 증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요한다. 취재 보도로 인한 언론인 괴롭힘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70.7%)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이들이 ‘언론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43.3%)이라고 답했다.[\[그림 4\]](#) 특히 기자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응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괴롭힘에 대해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에 대한 악성댓글을 단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 한 기자(뉴스통신사, 10~15년 차)는 “누가 나를 고소하면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려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취재·보도로 인해 겪은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해 기자가 먼저 법적 조치(8.4%)를 취하는 결정은 아주 흔하지는 않다. 또한 개별 언론사가 법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계 전체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기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 만족도와 사기 하락 속 이탈 또는 현실 안주

무력감과 괴롭힘의 증가는 자연히 만족도 및 사기 하락으로 이어진다. 응답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물은 결과 중간값인 5점을 약간 넘어서는 6.09 점이었다. 2017년 5.99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19년 6.19점, 2021년 6.30점을 거쳐 조금씩 회복세에 있

[그림 4] 취재 보도로 인한 언론인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출처 - 2023 한국의 언론인 보고서>

[그림 5] 연도별 언론인 직업 만족도 추이



<출처 - 2023 한국의 언론인 보고서>

던 직업 만족도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소폭 하락한 것이다.[\[그림 5\]](#) 총 9개의 구체적인 직업 환경 요인을 제시하고 각 요인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봤다. 점수가 3점을 초과할 때 응답자들이 해당 요인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3점이 넘는 평가를 받은 요인은 ‘업무 자율성’(3.60점)과 ‘직업의 안정성’(3.02점) 두 요소뿐이었다.

사기도 하락했다. 최근 1~2년간 편집·보도국 내 기자의 사기 변화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

[그림 6] 연도별 편집국·보도국 기자의 사기 변화 추이

(단위: 점, 5점 평균)



<출처 - 2023 한국의 언론인 보고서>

과는 2.36점으로 2021년 조사 당시의 수치(2.42점)와 비교해 하락했다. 2017년 2.03점, 2019년 2.33점, 2021년 2.42점을 거쳐 상승세에 있던 사기가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그림 6] 사기가 저하됐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2.3%에 이르렀다. 2017년 76.8%, 2019년 62.9%, 2021년 58.5%를 거치며 하락했던 해당 응답자의 비율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만족도와 사기 하락 속에서 기자들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현실 안주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특히 ‘그저 월급쟁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예를 들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한 기자(뉴스통신사, 17년 차 이상)는 “(과거에는) 공론장을 만드는 지적인 역할,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 기자의 지사적 역량이 이상향”이었지만 지금은 “(기자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상업화된 한 미디어 산업 분야의 월급쟁이가 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이탈이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 을 고려하는 기자들이 상당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4.0%가 아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매체별로 아직 의향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특히 스포츠/외국어일간(91.3%), 경제일간(85.4%) 소속 기자 사이에서 아직 의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 스포츠/외

국어일간 소속 기자들은 악의적인 고소·고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일간 소속 기자들의 경우 정서적 소진과 냉소 정도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경험이 높은 아직 의향과 관련 있을 수 있다.

● 허리 역할 기자 위한 지원 필요

<2023 한국의 언론인: 제16회 언론인조사> 결과를 소개한 것은 언론인들의 고달픔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저널리즘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언론인들이 그 노력을 계속하도록 돋기 위해 어떤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고민할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언론계가 지치지 않고 디지털 혁신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써야 할 중요한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할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조사 결과가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은 언론계에서 소위 ‘허리 역할’을 하는 30~44세 기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혁신 피로도의 연령차가 두드러졌다는데, 30~34세(44.2%), 35~39세(42.1%) 등 허리 역할을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의 혁신 피로감이 특히 높았다. 사기 저하 역시 특히 소위 허리 역할을 하는 30~44 세 기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30~34세 기자들의 65.7%, 35~39세 기자들의 67.0%, 40~44세 기자들의 67.5%가 사기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정서적 소진도 30~34세(3.46점), 35~39세(3.44점) 기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50대 이상(2.95점)과 60대 이상(2.68점) 기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낮았다. 그 결과 아직 의향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34세, 35~39세에서는 각각 무려 81.8%, 82.7%의 기자들이 아직 의향을 나타냈다. 특별히 해당 연령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